

# 워즈워스의 상실과 회복의 전략: 자기 치유

황 병 훈

## 차 례

- I. 머리말
- II. 유럽에서의 기억
- III. 반성과 수용
- IV. 맺음말

## I. 머리말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한 때 프랑스 혁명의 이상에 대한 열망과 자신이 소망하는 바의 신념을 지닌 젊은이였었다. 한 때 젊은 이상주의자였던 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혁명에 대한 열의는 프랑스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싶어 하는 명분과 더불어, 1791년에 프랑스로 향해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프랑스의 파리와 오를레앙, 블루아에 체류하는 동안은, 그 이전까지 정치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그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넣어 준 기간이었다. 대륙에서 만나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시민들, 즉 평범한 서민들과의 경험은 그들을 향해 워즈워스가 갖는 공감과 연민을 자극시켜주었고, 그로 하여금 정치적 급진주의로 전환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그는 1793년 루이 16세가 처형된 것에 대해 리처드 왓슨(Richard Watson)이 공포와 분노를 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랜다프 주교(Bishop of Llandaff)에게 편지를 보내, 프랑스 국민들이 제국 통치자들에게 대항하며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변호하기도 했었다. 1793년에는 영국의 서부 지역을 홀로 방황하면서, 자신이 염두에 두었던 바를 「슬즈베리 평원」

(“Salisbury Plain”)에 기록하며, 시골의 가난한 자들의 비참한 고통뿐만 아니라, 개혁 혹은 혁명을 향해 영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자신의 요구를 극화시켜 놓기도 했었다. 이렇듯 그에게는 한 때 자신의 내부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신념과 그것을 향한 염원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자신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변화의 상황과는 대비적으로, 1795년과 1796년 사이에는 내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e 219-21). 자신을 쇠약하게 만들었던 심적 고통의 세월들을 회상하며,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서곡』(*The Prelude*)에서 고백하면서 “그토록 엄청난 질병의 위기”와 “영혼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마지막 쇠퇴기”(『서곡』[1805]<sup>1)</sup> 11. 307, 308)에 자신이 처했었다고 요약하고 있다. 우울증을 겪고 있을 무렵, 그는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여동생 도로시(Dorothy)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정신적 친구인 사무엘 테일러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와도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그러나 주변에 고난을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서 겉보기에는 상서롭게 여겨질 수도 있는 환경이기는 했지만, 그의 정신 질환은 심각하면서도 꽤나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자신이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통한 각성을 통해서 자신이 프랑스 혁명에 암묵적으로라도 연루되어있음을 좀 더 각도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위즈워스가 실패로 끝나고 만 혁명으로 인해서 느꼈던 좌절감과 갈등의 위기의식을 비판과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게 시를 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유럽에서의 기억

위즈워스의 뇌리에 오랜 동안 남아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이 사건들은 그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경험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기억들은 그에게 심오하면서도 지속적인 충격을 준 듯하다. 첫 번째는 “순교자와

1) 이후의 『서곡』(*The Prelude*) 본문 인용은 1805년 판본에서 인용한 것임.

같은 확신으로 고무된/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정신과 현재적 희망”(『서곡』 9. 278-80)을 품고, 프랑스 군 지원병들이 그들의 가족을 떠나 전장으로 행진해가는 장면에 대한 기억이다. 그 다음은 자신의 프랑스 친구인 마이클 보피(Michel Beaupuy)가 “기아에 허덕이는 소녀”(512)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맹세하는 사건이다(Keay 180). 이 두 사건들에서는 자기희생적 태도를 통해서 고양되고 융합된 웅장한 영웅주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보피의 기사도적 정신이 “고통에 대한 그[워즈워스]의 개인적 반응과 맞물려서, 갑작스런 계시적 힘을 가진 철학적 전사로서의 목표”(Roe 58)가 되었듯이, 젊은 프랑스 군인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은 “천국으로부터의 논쟁거리처럼”(『서곡』 9. 289) 그의 마음에 “단순히 자유로워지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명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명분으로써”(Moorman, *Early Years* 221) 프랑스 혁명의 정당성을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보피와 다른 애국자들의 영웅적인 열망은 궁극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에는 충분치 못한 결과가 되었고, 또한 그의 정치적 행동을 위한 시도도 헛된 노력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가 정치적 저항에 관해 쓴 시도 평생 동안 온전히 빛을 보지 못했다. 혁명에 난관이 따를 것을 예견한 그가 1792년 말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지롱드파(Girondin) 친구들과 고난을 함께 해야 할 의무에 대해 생각해보았지만, “생활 자금의/ 극도의 결핍”(『서곡』 10. 190-91)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인 1794년에는 “각자의 손에 불을 들고 자신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암흑 속을 걷어가는 군중”(Moorman, *Early Years* 254)을 돕기 위해 급진적인 문학과 정치 저널을 착수할 계획도 세웠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계획은 이전과 똑같은 진부한 경제 문제로 인해서 시작되지도 못했다. 1795년 후반에는 자신의 급진적 명분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지만, 보피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소용없게 만든 현실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혁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차원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 이후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완전히 흥미를 잃게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변화에 환멸을 느끼기 까지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평등주의적 열망이 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Roe 196-8).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확신의 모든 감정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모순당착에 괴롭고, 지쳐서,/ 절망 속으로 도덕적 문제를 포기해 버렸다”(『서곡』 10. 897-900)고 까지 말한다.

그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심적 확신과 일관성에 대해 일종의 타협을 하거나 혹은 이미 상실된 명분으로 판명된 것에 대해 자신을 회생시키기 보다는, 『서정민요집』 (*Lyrical Ballads*)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면서 자연을 향한 본능적인 움직임으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본능적 움직임은 “그의 짧은 시절의 보다 행복하고, 보다 소박한 세상”(Moorman, *Later Years* viii)으로 그를 도피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넓게 펼쳐진 태양 아래로 [그를] 안내해 주었고,/ [그의] 어린 시절의 감정을 되살려 놓고,/ 확대시켜 주었으며, 더 이상 결코 혼란스럽지 않은,/ 평화로 가득 찬 힘과 지식을 [그에게] 주었다”(『서곡』 10. 923-26). 그는 정치적 헌신 속에서 겪은 위기를 정교하게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환경을 재구축하고 자신이 이전에 범했던 과실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차후의 혼돈의 결과로 빠져들지는 않게 되었다(Ellis 48-9).

워즈워스가 정신적 위기에서 회복되는 계기는 1795년에 그가 머물렀던,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인 레이스다운(Racedown)에서 맞게 된다. 도시에서부터 시골로의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급진적 정치적 의도의 좌절에 대한 인식이며 투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1790년에 프랑스에 간 첫 번째 여행에서, 그는 혁명에 대해 널리 환영하며 흥분되어 있는 프랑스를 목격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되지 않았었다. 당시 그는 프랑스 국민들에 대해서 흡족함을 느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의 급진적 운동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대중의 시국적인 관심에 함께 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여행을 위해서 애초에 의도했던 바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 그가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도 알프스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었다. 여행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을 마칠 무렵에도 그는 “듣고, 보고, 그리고 느끼며,/ 감동은 받았지만 절실한 관심은 없는”(『서곡』 6. 695-96), 어느 것에도 개의치 않는 방관자였다. 1791년 11월에 그가 두 번째로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되면서도,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격

변들에 그다지 중요되지도 않았었다. “좀 더 허물없이 언어를 말하고자하는/ 개인적인 소망”(36-37)에 자극되어 그는 파리보다는 오를레앙이라는 시골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혁명과 연관된 당시의 일련의 사건들 보다는 오히려 르 브룅(le Brun)의 구슬프고 감상적인 막달라(Magdalene)를 통해서 더욱 감동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는 급진적인 정치적 상황과 견해들로부터는 감정적으로 유리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는 「폐허가 된 오두막」 (“The Ruined Cottage”)에서 가난한 시골 사람에 대해 취하는 반응을 달리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폐허가 된 오두막」에서 빈곤함과 감정의 궁핍함에 빠져있는 마가렛(Margaret)은 「솔즈베리 평원」에 나오는 몰락해버린 여자 방랑자와 상당히 유사한 “진실의 영웅들”(「솔즈베리 평원」 541)이라고 하는데, 위즈워스는 “[그들의] 행군을 수행 하도록”, 그리고 “심원한 바닥에서부터 압제자의 지하 감옥을 뿌리째 뽑아내도록”(541-42) 요청하는데, 이전의 소원한 듯 보였던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느껴지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다. 직접적 정치적 개입 보다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에게 내재된 프랑스 혁명의 평등주의적 이상과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향한 충동은 이전에 자신이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자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Johnston 183-5).

그가 느끼는 동정심의 대상은 『서곡』에 나오는 불쌍한 처지에 처한 “기아에 허덕이는 소녀”와 도움이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솔즈베리 평원」의 몰락해버린 여자 방랑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위즈워스가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쇠약으로부터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고통 속에서 낙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하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에서부터 경고 받고 있는 것인 양”(『서곡』 7. 623) 느끼도록 만들어준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를 교화시키고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위엄과 힘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었다. 1795년 이전에는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으며 최소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시인 자신으로 인식되는데, 1796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들이 시인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로 변모되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1795년 이전에 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보답으로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반면, 1796년 이후에는 그는 이들에게서 상호 원조의 잠재성에 대한 가능성의 교훈을 얻게 된다(Johnston 51-2).

1795년 이전에 자신에게 과오를 안겨주었고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것은 항상 프랑스의 탓이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만거리만을 안겨주었던 프랑스에서의 사건들에 대해 그가 경험했던 1790년대 초반의 정신적 충격들과 그 충격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기복들에 대해 1796년 이후에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패배한 것이 되고 만 혁명적 이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혁명의 평등주의적 이상만은 저버리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게 되면서, 차후 자신과 프랑스를 연관 지어 보려는 작업으로 전환한다. 런던에서 레이스다운으로 이사하고 난 이후 자신에게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사회의 상이한 계층들끼리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그가 갖게 된 생각들은 1805년에 자신의 삶에 대해 기술해 놓은 시들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신념의 위기를 재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서곡』 6권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이 유럽에 처음 여행했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두 번의 불운했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사건은 그와 함께 여행했던 동료들이 심플론 고개(Simplon Pass)에서 안내원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끔 내맡겨지자, 그들은 “[그때] 눈에 보이는 유일한 길”(『서곡』 6. 504)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정상으로 가는 노상에서 그들의 안내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갈림길을 택했고,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알프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곧바로 실망에 빠졌다. 두 번째 사건은, 워즈워스와 그의 친구가 한밤중에 이태리 교회의 종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종소리들이 합쳐져 울리는 소리들로 인해서 “저녁이 가까워졌다”(625)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라베도나(Gravedona) 마을을 서둘러 떠나면서 그들은 진심으로 “가장 열중해서 쉬고 있는/ 장면을 보고자”(628-29) 기대했었다. 그들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물가”(626-27)를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그들에게] 길잡이였던/ 평범한 작은 길”(627-28)을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곧/ 길을 잃

고, 큰 숲 속에서 방황”(630-31)하게 되었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된 각각의 사건들 속에서 위즈워스가 실망을 겪게 된 것은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외부의 상황들과 연관이 깊다. 만약 그들의 여행 안내자가 그들을 심플론 고개에 남겨두지 않았거나 혹은 정상으로 나 있는 그 길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있었다더라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이태리에서 그가 들었던 교회 종소리가 영국에서 그가 들었던 종소리와 별다르게 들리지만 않았더라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밤늦게 그라베도나를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어느 상황에서든 그저 수수방관하지 않고 처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바대로 혼신의 힘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사건들의 결과가 자신이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심적 부담감이나 낙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위즈워스가 겪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은 발생 당시에 너무나도 부정적 사건들이었는데 그의 회상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 경험들로 변모된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스스로 치유 받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것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외부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접고, 대신에 자신이 느끼는 불만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위즈워스와 동료가 심플론 고개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 확신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들이 도달할 수 있을 그들만의 목표치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도 모르게 알프스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분 언짢게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라베도나에서의 순간에 확신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황무지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 불편함에 실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부지불식중에 알프스를 횡단하고 한밤중에 길을 잃은 것은 불쾌한 경험이었겠지만 위즈워스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며 회상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감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들로부터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혜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휘한다 (Onorato 137-8). 사실상 그가 겪은 불운했던 이 두 번의 사건들은 오히려 피상적으로는 불행해 보였던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서곡』에서도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위즈워스는 프랑스에서의 혁명적 명분에 자신이 감정적으로 연

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그렇지만 위에서 거론된 사건들은 위즈워스 자신과 프랑스 혁명 사이에 연관된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접근 방법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젊은 시절 겪었던 위의 두 사건은 위즈워스식의 자기 계발과 자기 구원의 효율성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사건들이었다. 이 사건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저지른 큰 실수, 다시 말하자면 1790년대 중반에 스스로가 깊어졌던 정신적 상처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신이 무능력했었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사건들이기도하다. 그가 어릴 적 경험했던 심리적 변화들과 아울러,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가졌던 신념이라는 것이 이론상 숭고하고 올바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선적이고 값어치가 없는 희망들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그를 이끌어준 사건들, 즉 심플론 고개와 그라베도나에서의 사건들은 그로 하여금 프랑스 혁명의 실패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가능케 도와준 계기가 되었다 (Spiegelman 140-1).

### Ⅲ. 반성과 수용

이상과 현실의 모순들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 지쳐있던 1795년 후반부에, 위즈워스는 1793년 판 「솔즈베리 평원」을 수정하여 「솔즈베리 평원의 모험담」(“Adventures on Salisbury Plain”)으로 바꾸어 놓았다. 1796년에는 자신의 정신적 절망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그는 연극 「변방인들」(“The Borderers”)을 썼으며, 그 후 자신을 쇠약하게 하는 우울증에서 회복하고자 1797년에 단편 서정시인 「주목나무의 의자에 남겨진 시」(“Lines left upon a Seat in a Yew-tree”)를 썼다. 장르와 주제 면에서는 각기 다르지만 이 세 작품은 외부의 상황에 희생된 주인공을 그리고 있다. 위즈워스 자신의 정신적 질병의 여파 속에서 선과 악의 애매모호함 뿐만 아니라 도덕적 양면성을 극화시켜놓은 이 세 작품은 그의 심리적 혼돈과 좌절을 그려 보여 준 작품이면서, 1796년 이후에는 그의 정신적 고민과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

움을 준 작품이기도 하다. 「솔즈베리 평원의 모험담」에서는 농부였다가 선원이 된 자가 등장하는데 그에게 사회가 어느 정도 관대했다더라면 그 선원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약탈과 살인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변방인들」에서 마마듀크(Marmaduke) 또한 죄 없는 노인 허버트(Herbert)를 죽이는 비극을 되풀이하지도 않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품위를 갖고 있었더라면, 「주목나무의 의자에 남겨진 시」에서처럼 「마음이 깨끗한」(「주목나무의 의자에 남겨진 시」 15) 주인공은 “방종한 혐의/ 오점에 대항하고, 질투와 증오, 그리고 경멸에/ 대항하고, 모든 적들에 대항하는”(15-17) 자신의 투쟁을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세 작품은 워즈워스가 희생된 주인공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초창기 때는 자연에 의탁하고 기대는 마음가짐이 앞선 상태라서 이 세 작품은 워즈워스가 혁명의 좌절을 이해하고 그 좌절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안으로써 작용하지는 못했다. 「솔즈베리 평원의 모험담」에서 선원의 타고난 순진함이 그의 목숨을 구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변방인들」에서 마마듀크가 지니고 있는 내면적 가치가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하게 된 방향의 순간들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목나무의 의자에 남겨진 시」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는 주인공이 자신의 사회적 추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 작품에서 그려진 자기 연민의 수단은 워즈워스에게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점들과의 관계 파악 및 그것들의 극복에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 연민적 취향은 1795년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그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1796년 이후에는 이러한 연민적 취향은 그가 “실망과 좌절의 한복판에서 희망의 토대를 재건해보는 것”과 “영적 그리고 도덕적 혁명으로 전환”(Abrams 59)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급진적 정치적 태도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기 비판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길을 열어준 하나의 계기이자, 완벽한 전환점이 되었다.

「솔즈베리 평원의 모험담」에서 살인자 선원의 모습과 너무 나도 다른 워즈워스는 1793년의 부친살해와 관련된 편지에 관해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변방인들」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스로를 추방시키는 마마듀크나, 혹은 「주목나무의 의자에 남겨진 시」에서 스스로를 시들고 나약한 존재로 치부해버

린 사회 부랑자와는 달리, 위즈워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비탄에 빠지거나 수척해지지 않았다. 얼핏 고독에 빠져들어 각자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허구적 등장인물들과 위즈워스 자신 사이에 모호한 유사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내적 의지와 상반된 이런 부류의 인물들을 그려내었던 것은 그의 문학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Spiegelman 112-3). 그가 정치적 싸움터에서부터 멀리 피해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의 전략으로써 자신이 겪은 이전의 패배의 현실을 문학적 성공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으로 전환시켜 놓기 위한 자세였던 것이다. 그가 1798년 3월 6일, “소유한 지식의 대부분을 전달하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Gill 144)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와 그가 “암흑 속을 걷어가는 군중”을 도와 주려는 의도를 보여주었을 때는 1794년의 행동주의적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인다.

위즈워스는 『서곡』 12권에서, “왜 이같이 영광에 찬 피조물은/ 몇 만 명 속에 단 한 사람밖에 찾아 볼 수 없는가?”(12. 90-91)라고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그 한 사람은 어떠한 것이며/ 왜 다수는 안 되는가?”(91-92)라고 반문한다. “우리가 사랑해 온 것을/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도 좋으리라”(13. 444-45)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대목에서는, 그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늙은 선원의 노래」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586) 옮겨 다니며 “무시 무시한 이야기”(584)를 반복하고 난 이후 안도감을 찾는 선원이자 이야기꾼인 코울리지의 주인공과 너무 흡사하다. 1790년대 중후반부에 증폭된 자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사이에 연속성을 찾고”(Gill 234)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때 품었던 혁명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 「은둔자」 (“The Recluse”)는 1790년대 말과 1800년대 초반에 그의 시가 나아간 방향에 대해 가능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가 가졌던 혁명에 대한 고상한 열망을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불운하게 되고 만 자신의 희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가 프랑스의 혁명적 이상과 명분에 감정적으로나마 연루되었었다는 경험은 한 때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기도 했으며 내심 급진

주의적 정치적 성향의 시도들이 일도록 자극을 주기도 했었다.

이후 1798년을 기점으로 워즈워스는 철학적 의미를 띤 시들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며 보다 자신에 대해 명확한 시를 작성해 보고자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데, 이전의 경험은 자신의 원기 회복적인 노력들에 에너지와 영감을 제공해주었다(Johnston 18-9).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게 된 데는 코울리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울리지는 일찍부터 워즈워스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던 유일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또한 그는 “[워즈워스가]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도의를 이루어 철학의 체계를 독자적으로 전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Jackson 70)고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다. 1796년 이후 워즈워스는 자신을 “선택받은 아들”(『서곡』 3. 82) 혹은 “헌신적인 영혼”(4. 344)으로 인식하면서, “영광스러운/ 몇 작품”(1. 86-86)과 “진리에 대한/ 철학적 노래”(230-31), “오르피안의 수금에 어울리는/ 불멸의 시”(233-34) 그리고 “견딜 가능성이 있는 작품”(13. 279)을 작성해야할 욕망과 책임감에 압도됨을 느꼈다. 1795년 이전까지는 그는 사회적 부조리를 근절시켜 보려했던 보피의 비현실적 욕망을 회고해보면서도, 「은둔자」를 향한 분투의 노력은 어느 곳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었다. 안타깝게도 그가 상상했던 종류의 철학적 시는 완성을 보지 못했다. 자신의 시 설계 작업에 대해서 “거룩하게 가르침을 받았다”(「그래스미어의 집」(“Home at Grasmere”) 907)고 하며 “말할 특권을 부여받았다”(908)고 느꼈지만, 자신이 『은둔자』와 연관 지어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했다. 제반 상황들이 처음에는 그가 의도했던 대로 잘 맞아 들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의 행로에는 항상 현실이 개입되어 그의 욕망의 표출을 막아섰다(Onorato 302-3).

1805년 판 『서곡』의 시작부에서는 “어떤 거주지가 나를 맞아 줄 것이고, 어느 골짜기가/ 나의 집이 될 것이며, 어느 달콤한 시냇물/ 속삭임으로 자장가를 불러 나를 휴식케 해 줄 것인가”(『서곡』 1. 11-14)라는 자신이 던진 질문들에 답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열거하는 듯하다: 그는 “대지가 온통 내 앞에 펼쳐지며”(15), “안내자로 택한 것이/ 떠도는 구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고/ 나는 내 길을 잃을 리 없었다”(17-19)고 이야기를 전하

고 있다. 외부로부터 “천상의 달콤한 숨결이/ ... [그의] 몸에 불어오고”(41-42) “호응하는 온화한 창조적인 바람”(43)이 내부로부터 이는 것을 통해서 기운을 얻는다고 느꼈을 때, 이 바람이 자신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하나의 태풍, 창조를 뒤흔드는/ 풍요한 원동력”(46-47)으로 바뀌는 것을 감지했었다고 한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선택한 골짜기를 향한”(100) 여행이 그의 “영혼에게는/ 새로이 회복된 힘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해 본”(101-3) 계기는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희망이 “황령당하고 ... 하프와, / 무리를 이룬 수많은 조화의 음악소리는/ 대오를 떠나 흐트러져 버리고, 결국 침묵을 지키며”(104-7) 곧바로 또 다시 실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이 의도했던 웅장한 시의 계획이 실패로 귀결되었던 것은 위즈워스에 게 내재한 도덕적인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가 보인 도덕적 애매모호함은 정치 행동주의적 충동의 이면에 이미 들어있는 듯 보인다. 프랑스 혁명의 동기와 이 혁명을 정당화시키는 노력을 구현하고자 했던 보피는 “기아에 허덕이는 소녀”의 고통에 가슴아파하고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자신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었다. 프랑스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난 이후 위즈워스는 희망과 기대를 빼앗겨버린 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보피 처럼 반응하면서, 심리적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을 헌신하고자 다짐도 했었다. 그리고 “[영국인들을] 일으켜 세울”(「런던 1802」 (“London 1802”) 7) 수 있고 “[그들에게] 예의범절, 미덕, 자유, 힘을 줄”(8) 수 있는 밀턴(Milton)을 향해 자신의 기도에 대해 화답해주기를 기원했었다. 그리고 그는 한 때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기를 열망했으며, “자주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바로 옆에서 여행하고”(Literary Criticism 72)자 하는 열망도 가졌었다. 그러나 이토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들은 도와주기를 열망했던 보피와 위즈워스의 욕망은 평등주의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고자하는 위즈워스의 소망과 행위는 강박 관념으로 이어졌다(Roe 62). 로맨스 문학에서 자신을 떠돌아다니는 기사로 투영한 것은 자신이 도와주고자 희망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보다도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는 가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가정은 처음부터 그의 행동주의적 충동을 자극시키기는 했지만 오히려 평등주의적 비전에는 모순되는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은둔자』를 통해 그려내고자 한 위즈워스의 문학적 열의도 꺾일 수밖에 없었고 그가 프랑스의 혁명적 명분에 대해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고 엇갈리면서 자신의 열정과 좌절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복되는 결과로 퇴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위즈워스 자신 스스로가 때로 확신에 차 있었다고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항상 길을 잃었던 심플론 고개나 혹은 그라베도나 근처에서 잘못 인도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철학시를 써보려는 시도를 할 때 뿐만 아니라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할 때,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내놓지 않는 나쁜 지배인”(『서곡』 1. 270-71)처럼 자주 느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가 체념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어조에서 느껴지는 허울상의 재앙은 1795년 전반부에는 그의 마음속의 병만큼이나 불행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자신의 시적 상상력에 대한 심적 의구심이 반복되는 것을 견디어 내게 되고, “그저 패배자라면 여겼던 마음가짐에서부터 승리를 일구어내고, 시의 불리한 점들을 장점으로 재정의”(Simpson 22)하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격동의 결과에 대해 실망과 좌절을 느꼈지만 자연을 통한 자기 치유적 노력의 일환으로 철학적 시를 쓰겠다는 당시의 열정적 다짐은 『서곡』을 위한 동력이자, 초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가 이전에 겪었던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좌절은 문학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작품의 재료이자, 수사적 구도를 위한 재료가 되었던 것이다.

위즈워스는 1798년 「『서정민요집』의 소개글」(“Advertisement to *Lyrical Ballads*”)에서 당시에 인기 있던 시들과 자신의 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자신의 차별화된 노력을 “사회의 중류층 및 하류층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언어가 어느 정도까지 시적 즐거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로 쓰여진 실험들”(Prose Works 1. 116)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시적 이론과 작시(作詩) 활동을 위한 문학 소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놓았다. 자신의 문학적 열망을 증명해보이기 위해서는 시골

인물들과 시골의 상황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 그가 “낮은 시골의 삶”(Prose Works 1, 124)에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은, 코울리지가 언급했었던 “고상한 지위와 상류층의 세련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때로 교양 없고 세련되지 못한 열등한 자들의 습관과 이야기를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어정쩡한 도덕적 효과의 즐거움”(Biographia Literaria II, 73-74)에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자신의 단어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인류의 현실적인 혹은 바람직한 동정심에 ... 부합하도록”(Danby 16) 만드는 방법을 강구한다.

인물 설정에 있어서도 『서정민요집』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보이거나 혹은 걸음으로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는 아이들이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자들이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수척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1798년 이후 그의 시들에서는 유년 시절과 청년시절부터 그가 겪었던 서글썩던 실수들과 애처로운 실패들로 가득하다. 이 시들은 초창기 자서전적 시들에서 신성시 여겼던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시들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자신이 보트를 훔쳤던 사건과 심플론 고개에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알프스로 넘어갔던 사건, 그리고 한 밤중에 일어나 그라베도나 가까이의 황무지에서 길을 잃었던 일에 이르기까지를 회상하고 고민하며, 이제는 자제를 통해서 그리고 혹독하게 고행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음을 그려내고 있는 시들이다(Spiegelman 16-7).

심리적 갈등과 좌절에 대한 경험을 넘어서서 갖게 된 자기 치유에 대한 욕구는 그의 시의 수사적 구도와 인물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패와 좌절을 견디어 낸 작가가 체득하게 된 인고의 힘은 상반적 개념과 대상들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통합시켜서 이제는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 의미로 전환시키는 수사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바보 소년」(“The Idiot Boy”)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 의사를 데리고 오는 일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수잔 게일(Susan Gale)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인물인 조니(Jonny)를 그려낼 수 있는 작가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구디 블레이크와 해리 기일」(“Goody Blake and Harry Gill”)에서는 구디 블레이크가 허약하고 무기력하지

만, 긴장한 젊은 지주와 젊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압도할 정도의 말들을 사용하는 인물을 그려낼 수 있는 작가가 된 것이다. 구디 블레이크가 보여준 신체적인 용맹과 민첩함의 문제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런 인물이 정상인에 대비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정도의 여유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일곱 식구」(“We Are Seven”)에서는 젊고 집요한 시골 소녀의 마음속에다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주입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겉보기에 판에 박힌 듯하고 독단적이기만 하던 시적 화자가 시골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적 경계선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그려 놓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도록 제시해 놓는 수사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보이게 된 것이다. 『서곡』을 통해서도 워즈워스는 자신이 사는 동안 자연으로부터 참으로 형편없이 대접을 받은 상황에서조차도, 그는 자연과 긍정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자국들(spots of time)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불쾌감을 느꼈지만, 결국 각각의 부정적 사건들은 그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던 사건들이 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 버렸던 심플론 고개와 그라베도나 가까이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그가 느끼는 실망감이 너무 컸지만, 이전에 이미 많은 다른 유사한 사건들로 방황도하고 길도 잃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워즈워스는 이제 자신의 시들 속에 나오는 부정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상반적 개념과 대상들을 변증법적 전개방법으로 통합시켜 놓을 수 있는 면모를 갖추어 자신의 시작업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워즈워스가 자신의 상실을 경험하며 방황했던 기억들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외상으로만 남아 고통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

적 좌절의 극복이라는 자기 치유적 과정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의 『서곡』과 『서정민요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정적 경험들은 초반부 작품들에서 그가 시골 인물들과 상황들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선택이 차후의 시들에까지 어떻게 혹은 얼마나 잘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한 때 정치적으로 품었던 확신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정신적 위기와 시 창조에 대한 확신의 문제점과 관련시켜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에 끊임없이 몰두했던 경험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과 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이 되었던 정치적 관심의 영향력을 암시적으로라도 보여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차원에서 외상으로 남아 있던 실패와 좌절의 경험, 그리고 그 극복의 양상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때면 겪었던 좌절과 상처는 그가 시에 그려내고 싶어 했던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워즈워스는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를 소생시키는 글쓰기 전략을 통해 “자연의 주요 법칙들”(Prose Works 1. 122)과 “우리의 느낌과 생각들이 흥분의 상태에서 연관을 맺는 방식”(126)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관심을 시적으로 극대화시켜 놓았다. 그의 시는 미학적 경험이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의미를 촉발케 할 수 있는 외부의 대상물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자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철학시인 『은둔자』를 완성 짓고자 했던 자신의 열정과 프랑스 혁명을 향한 열망이 좌절됨을 감지하고 난 이후에, 만약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시인 본인에게는 상당히 열악했었던 것만으로 남고 말았을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최대한 문학적으로 잘 이용하고 참아내었던 것이다.

그가 보여주었던 수사적 구도는 비현실적 충동들과 열망의 좌절로 빚어진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었고, 1796년에 세웠던 급진적 계획들과 1798년 이후에 계획했던 야심찬 철학시를 통해서 그가 한 때 그토록 간절히 소망은 했지만 이루어 낼 수 없었던 것들을 추구하게끔 해주었다. 그는 본인의 시작 활동이 자기 깨달음과 더불어 자신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작업이 되도록 해 놓았던 것이다. 그가 겪었던 실패와 좌절이 미학적 경험들로 변모 혹은 전환되

어 텍스트라는 구체적인 물질로 형상화된 셈이다. 그가 겪었던 부정적 경험들 또한 그의 글 속에서 미학적 경험들로 통합되어 긍정적으로 승화되었다.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이 지적해 주었듯이, 워즈워스의 수사적 전략과 그 전략이 보여주는 독특함은 그의 시에 하나의 혁신, 즉 “시가 그려내고 있는 상실, 즉 주체성을 제외한 어떤 주체의 소실을 통한”(8) 미학적 경험들로 축성된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의 완성이라는 일종의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워즈워스의 자기 치유적 글쓰기 과정에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던 혁명을 향한 열의와 더불어, 1790년대 후반부와 1800년대 초반부의 시들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에 대한 연구의 연관성을 알아내는데도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인 용 문 헌

- Abrams, M. H. "English Romanticism: The Spirit of the Age." *Romanticism Reconsidered: Selected Papers from the English Institute*. Ed. Northrop Frye. New York: Columbia UP, 1963. 26-72.
- Bloom, Harold, ed. *William Wordsworth's The Prelude*. New York: Chelsea, 1986.
- Dandy, John F. *The Simple Wordsworth: Studies in the Poems 1797-1807*. London: Routledge, 1960.
- Ellis, David. *Wordsworth, Freud and the Spots of Time: Interpretation in The Prelude*. London: Cambridge UP, 1985.
- Gill, Stephen. *William Wordsworth: A Life*. Oxford: Clarendon, 1989.
- Jackson, H. J. ed. *The Oxford Authors: Samuel Taylor Coleridge*. Oxford: Oxford UP, 1985.
- Johnston, Kenneth R. *Wordsworth and The Recluse*. New Haven: Yale UP, 1984.
- Keay, Mark. *William Wordsworth's Golden Age Theorie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1750-1850*. New York: Palgrave, 2001.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Clarendon, 1957.
- .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Later Years 1803-1850*. Oxford: Clarendon, 1965.
- Onorato, Richard J. *The Character of The Poet: Wordsworth in The Prelude*. Princeton: Princeton UP, 1971.
- Roe, Nicholas. *Wordsworth and Coleridge: The Radical Years*. Oxford: Clarendon, 1988.
- Simpson, David. *Romanticism, Nationalism, and The Revolt Against Theory*. Chicago: U of Chicago P, 1993.
- Spiegelman, Willard. *Wordsworth's Hero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5.

- Wordsworth, William. *Literary Criticism of William Wordsworth*. Ed. Paul M. Zall. Lincoln: U of Nebraska P, 1966.
- \_\_\_\_\_. *The Poetical Works of Wordsworth*. Ed. Paul D. Sheats. Boston: Houghton, 1982.
- \_\_\_\_\_. *The Prelude. 1799, 1805, 1850*. Ed. Jonathan Wordsworth, M. H. Abrams, and Stephen Gill. New York: Norton, 1979.
- \_\_\_\_\_.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Ed. W. J. B. Owen and Jane Worthington Smyser. Oxford: Clarendon, 1994.

Abstract

## Wordsworthian Strategy of Loss and Restoration: Self-Healing

Byeong-Hoon Hwang

This paper demonstrates how William Wordsworth copes with his internal problems along with his political interest after he endures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a loss of self, presenting how he manifests them in his poetry. This elaborate study will serve to elucidate the connection between his radical politics and the reiterated pattern of his poetry of the late 1790s and the early 1800s.

The rhetorical scheme he intended in his literary restoration serves to swerve from the reactionary, unrealistic impulses and aspirations embedded in his politics in relation to the French Revolution. His psychological hurt and sense of frustration are the matter of grave concern he longs to portray in his poetry. Paradoxically associating his experiences of mental crisis caused by his frustration of political aspirations with his confidence in poetic creation, he becomes immersed in literary restoration to transform his negative experiences into sublimated ones, which demonstrates the powerful and continuous influence of his political interest implicated upon his poetry and his life. His sublimated experience through the process of “loss and restoration” becomes a well-fitted literary element as well as the quintessence for aesthetic manifestations in his poetry, leading to his rhetorical strategies and strategical uniqueness. Through his self-extinguishing and self-fulfilling poetic maneuvers, he aesthetically dramatizes the manner in which his feelings and ideas are associated with his interest in politics.

**Key words: William Wordsworth, Loss, Restoration, Self-healing, Aesthetic Experience**

**윌리엄 워즈워스, 상실, 회복, 자기 치유, 미학적 경험**

논문접수일: 2010. 4.13

심사완료일: 2010. 5. 7

게재확정일: 2010. 6.14

이름: 황병훈

소속: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주소: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이메일: byehoon7557@kmu.ac.kr

